

# 80年代의 孵化業 展望

金 政 雄  
(천호부회장 상무)

부화업의 향후 10년—지난 10년처럼만 발전한다면 부화업은 6배정도 그 규격면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신장할 지 아니면 그 이하로 성장할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병아리 수요는 계란과 닭고기(주로 부로일러 닭고기)의 수요증가와 정비례하는데, 전문가 또는 관련연구기관의 발표논문에 의하여 자료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1과 2를 보면 각 연구단체별로 수요예측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단지 계란과 닭고기의 잠재수요 상한선이 선진제국의 예로 보아 계란 300여개, 닭고기(生鷄基準) 30마리 정도를 국민 1인이 1년에 소비하는 시기가 80년대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1979년말)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은 130여개 닭고기는 부로일러기준으로 2.6마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하다면 80년대의 부화업 전망은 크게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화업의 불량적성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화산업의 수익성은 개개 기업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치열한 企業競爭은 많은 부화장의 폐업사태를 유발시키지 않을까.

그림 1. 주요연구별 닭고기 수요예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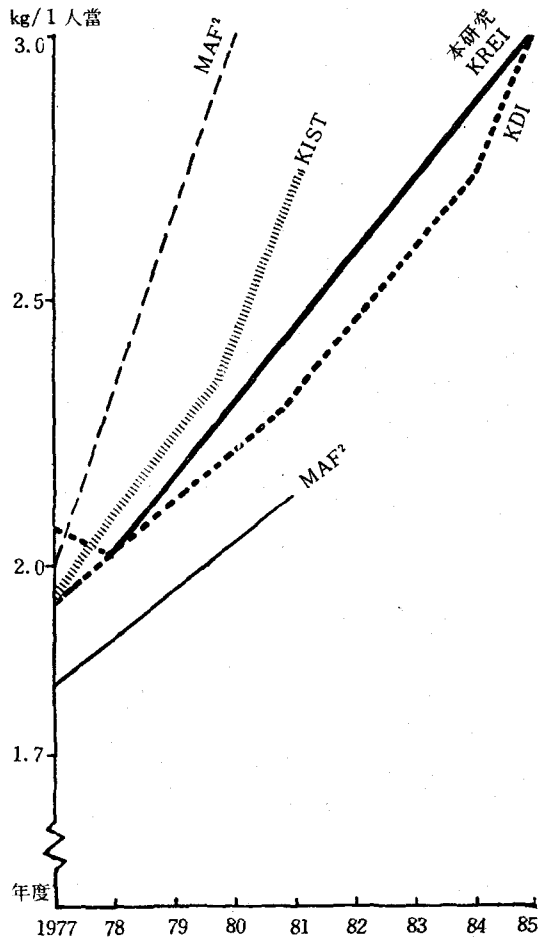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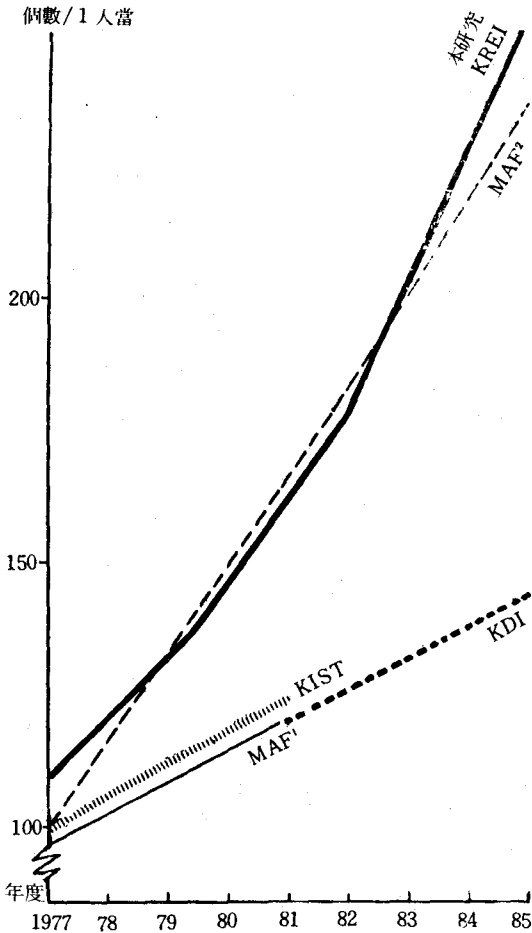


그림 2. 주요연구별 계란수요예측 비교



생각됩니다.

채란용 병아리의 부화업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그 전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란업의 앞으로 발전과정을 보면, 계란의 가격은 년중 안정될 것이고 개당 수익성은 필연적인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규모를 확충하여 대규모화를 통해 수익을 증가 시키는 길 뿐이며 이런 경우 병아리의 품질 즉 우수한 유전능력과 강건성은 해마다 강조될 것이며 채란업자는 우수한 병아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부화장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생산규모의 확대는 “을

표 3. 동물성단백질 소비수준별 주요축산물에 대한 1인당년간 수요예측량

년도	동물성단백질 총단백질		우유	돈육	계육	계란	우유
	%	x100	kg	kg	kg	개	kg
1978	일본수준	36.4	5.5	6.6	3.6	119	34.4
	선진수준	46.0	7.6	8.8	4.7	119	53.7
1979	일본수준	37.9	5.8	7.0	3.8	131	36.3
	선진수준	47.0	7.7	9.1	4.9	131	54.6
1980	일본수준	40.6	6.4	7.6	4.1	145	41.0
	선진수준	49.0	8.2	9.5	5.1	145	58.1
1981	일본수준	41.3	6.6	7.8	4.1	160	41.0
	선진수준	51.0	8.8	10.0	5.3	160	61.9
1982	일본수준	42.8	7.0	8.2	4.4	176	42.8
	선진수준	53.0	9.3	10.5	5.6	176	64.3
1983	일본수준	43.3	7.2	8.2	4.2	194	42.8
	선진수준	55.0	9.9	11.0	5.9	194	68.0
1984	일본수준	44.4	7.5	8.6	4.5	213	43.0
	선진수준	57.0	10.5	11.7	6.2	213	71.0
1985	일본수준	45.1	7.6	8.7	4.6	235	43.2
	선진수준	59.0	11.2	12.2	6.5	235	74.8
1986	일본수준	45.7	8.1	8.9	4.7	267	43.3
	선진수준	60.1	11.9	12.8	6.8	277	78.1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박사발표(월간양계 79년 10월호)

—인, 울—아우트 생산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1회 구매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구매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1회 부화량이 구매량보다 많아야 되므로 부화장 및 종계장의 대형화가 된 부화장만이 대규모화 해가는 채란업자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채란업의 물량적 확대는 노폐계의 판매처리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것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증대되는 부로일러수요와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79년처럼 노폐계의 적기도태가 어려워지며 또한 가격면에서도 해마다 불편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계의 대량수요처가 별도로 創出되지 않는한 채란업의 성장에 노계처리 문제는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의 수요는 대체식품인 어류의 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쌀

가격으로 가정에 공급된다면 적어도 그렇게 공급되는 일정시기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채란업계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경쟁품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허신행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식품류별 소비지출비 가운데 육류가 11%, 수산물이 9%의 구성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류가격이 10% 상승한다고 보았을 때 제란소비가 약 8% 증가한다고 하며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장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단위구매량이 작고 요리하기에 편리하고 거의 완벽한 영양식품이란 점에서 어류에 비해 우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며 생산원가면에서도 사료량의 큰 변동만 없다면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성이 높다고 하겠읍니다.

요약하면 채란용병아리의 부화업은 매년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나, 병아리수요가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점, 점차 1회구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병아리의 품질에 대해 경제수명이 끝날때 까지 채란업자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점, 감별 백신접종등의 번거러움, 고도의 종계관리 기술이 필요하며, 이미 종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근대화가 이루어진 선발기업들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 시설의 근대화 및 생산능력의 대규모화를 하지않는 부화장들은 채란용병아리의 판매경쟁에서 자연적으로 물러설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80년대는 잡다한 품종들이 정리가 되어 2~3가지의 계종으로 축소될 것이며, 채란용병아리를 부화하는 부화장도 현재의 50여개소에서 10개소안팎으로 크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부화장이 대형화되면 몇개의 부화장만으로도 병아리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화업부분에서 자본의 축적이 되면 (실제 가능해지리라 예상됩니다만), 대단위 부화장들이 제란포장판매사업(Egg Packing Plant)

과 노계를 주원료로 한 식품가공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같은 투자는 채란업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80년대에 국민 1인당 제란소비량을 주요선진국수준인 300개까지 끌어올리는 시기를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채란업의 급속한 발전은 바로 부화업의 발전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계부화업의 발전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현재 육계부화업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병아리 수요가 여름한철에 집중되어 있어 아무리 종계의 입식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종란생산기간 9개월동안 최소량 3~4개월간은 비수요기를 맞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병아리의 절대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두째로 영세한 자본으로도 육계부화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항상 난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을 종계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국내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육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병아리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년중 수지가 맞았으나, 80년대에도 이와같은 호황이 온다고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소비시장에서 돼지고기와 경합을 해야하는 처지이고 보면, 육계가격은 과거처럼 폭동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병아리가 격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진폭을 그리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규모의 종계를 보유하고 타부화장보다, 생산원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며 품질이 양호한 병아리를 생산하지 않고는 경쟁(현재 300여개 허가 부화장이있음)에서 독자경영이 어려울것으로 생각 됩니다.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계의 능력도 우수해야 하지만 종계의 능력 즉 종란 생산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종란은 전량 입란할 수 있도록 판매해야하며 부화율 또한 높아야 합니다. 최근, 필자가 계

산해본 종란생산원가와 입란개수 그리고 배부율에 따른 초생추 생산원가의 변동을 보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종란생산원가계산**

중계생산능력별	종란생산원가(개당)
150개 생산중계	9,963.50원÷150개=66.42원
140 " "	" ÷140 " =71.17원
130 " "	" ÷140 " =76.64원
120 " "	" ÷120 " =83.03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생추의 생산원가는 최저 105원에서 최고 147원 또는그 이상까지의 심한 격차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며 육계용병아리 부화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육계병아리 부화업은 80년대의 닭고기수요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한 그 성장가능성이 크

**육용 초생추 생산원가계산**

중계 1수당 입란개수	종란 생산비	배부율별종란부담비		부화비용	초생추생산원가	
		20%	75%		배부율70%	배부율75%
150개	66.42	94.89	88.56	17	111.89	105.56
140	71.17	101.67	94.89	17	118.67	111.89
130	76.64	109.49	102.7	17	126.49	119.19
120	83.03	118.61	110.71	17	135.61	127.71

**육용중계 생산비추정**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1. 육성비(2주령까지)	원	H.H. 94% 육성을
가. 종 계 구 입 비	1,064	수당 1,000원
나. 사 료 비	1,339.20	수당 11.56 kg
다. 방 역 위 생 비	134.90	
라. 광 열 비	146.30	개스육추
마. 인 건 비	766	120,000원÷6월÷2 (1인이 2,000수 관리원칙)
바. 감 가 상 각 비	125	건물 10년, 장비 5년
사. 수 리 유 지 비	62.50	
아. 잡 비	85.10	
육 성 비 소 계	3,722	
2. 산란기비용(60주령)		
가. 사 료 비	5,113.80	수당 44kg, 1일 165gr섭취
나. 방 역 위 생 비	410	
다. 인 건 비	1,276.60	
라. 감 가 상 각 비	218.90	
마. 수 리 유 지 비	109.45	
바. 기 타	212.75	수도전기료, 소모품비, 공과금등
산 란 기 비 용 소 계	7,341.50	
3. 생산비합계	11,063.50	
4. 잡수입	1,100	노계, 식란 판매수입
5. 실생산비	9,963.50	

주 : 자본 이자는 포함하지 않았음

기는 하나,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한 육계병아리만 전문으로 부화하는 부화장의 채산성은 항상 불안하다고 하겠읍니다.

첫째, 닭고기수요를 년중 고르게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소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가정소비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육계의 최종소비처는 음식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체하여 냉장부분육으로 판매해야 가정주부들의 구매량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아직도 소비대중의 구매단위가 작으므로 통닭을 사야만 닭고기를 맛볼수 있는 지금의 판매방식으로는 가정주부들이 선뜻 사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가족제도로 변하고 있으므로 닭한마리는 결코 적은량이 아닙니다. 다음은 닭고기의 소비 지불가격이 타육류 특히 돼지고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닭고기는 다리살과 앞가슴살 이외에는 별로 먹을 부분이 없는것 아니겠읍니까? 닭고기에서 正肉이라고 일컫는 (다리고기와 가슴살의 통칭)부분은 단지 35%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산원가를 낮출수 없는것도 아닙니다. 陸上에서 키우는 가축,가금들 중에서 사료효율이 가장 좋고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이 부로일러임으로 앞으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부화업자도 병아리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일정수준가격이하로 저렴하게 육계업자에게 공급해야 하며 육계업자도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육계판매가격을 적정가격에 팔아야만 타계류와의 소비시장의 경합에서 유리할 것이며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육계생산비의 절감을 위해서 80년대 초에 사료가격이 자유화되어 사료효율이 높은 사료의 생산이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부화장 난립에 의한 생산능력의 과잉입니다. 허가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요건이 간단하여 영세한 자본으로도

누구든지 부화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의 소요액도 많지않아 수지가 맞지 않으면 수개월 내지는 1년이상이므로 휴업을 했다가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화장 난립의 예방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그 첫째는 정부가 부화장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병아리 수요에 따라 매년 일정량 이상의 부화장 입란능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신규 내지는 증설을 허가토록 하는 방법일 것이며, 그리고 일정기간이상 휴업하는 부화장은 허가를 자동 취소하는 시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두째는 부화업자들 스스로가 병아리 판매가격을 적정가격이상으로는 절대로 팔지않는 공동판매정책을 실시 하므로써 부실경영을 하는 부화업체 또는 폭리를 노리고 새로 투자하는 신규업체가 자연도태 또는 신규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의 해결방법은 부화업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므로 지금과 같이 상호간에 대화를 할수 있는 광장이 없는한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든 가격안정 내지는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면에서도 부화업자의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부화업체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부화업자만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0년대의 부화업발전을 위해서 선결되어야할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 됩니다.

부화업의 안정발전 없이는 양계업의 안정적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양계산물-계란과 닭고기의 안정적공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업계와 정부당국이 다시는 79년의 생산과잉체제에 의한 불황의 악순환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이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80년대로 국가경제발전에 발맞추어 부화업계가 발전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안고 있는 보다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이들 문제가 해결된다면 부화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읍니다.